

家族計劃 司牧敎書 全文

~NFP (Natural Family Planning) 문헌시리즈⑩~

- ◆…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6월 25일 아래와 같은 「건전한 가족계획에 대한 사목…◆
- ◆…교서」를 발표하여 부부생활과 가족계획에 대한 교회의 태도와 가르침을 재확인했다. …◆
- ◆… 교회는 오늘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인구폭발과 자원고갈과 식량의 부족 및…◆
- ◆…환경 오염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자녀를 가…◆
- ◆…진 부모들에게 깊은 동정을 보내면서 현대사회를 죄악으로 물고 있는 윤리·도덕…◆
- ◆…에 어긋나는 피임·임신중절 내지 낙태의 허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가족계획…◆
- ◆…방법을 단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가족계획 자체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아니하…◆
- ◆…며 자연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써 주기법과 배란법(점액관찰법)에 의한…◆
- ◆…가족계획 방법을 교시하고 이를 위한 부부간의 신앙적 협력과 특히 「행복한 가정…◆
- ◆…운동등」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편집자) …◆

건전한 가족계획에 대한 사목교서

친애하는 교형 자매여러분, 혼인생활과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현대사회의 위험한 견해와 사악한 행습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도록 한국 주교단은 임신중절과 산아제한에 관한 교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밝혀 알려드리고자 이 사목교서를 모든 교우 부부들께 보냅니다.

(1) 교회는 사회의 공동 복지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구 증가문제에 관하여도 크게 염려하고 있는 터이며, 교회가 온갖 계획을 일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폭발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특히 우리나라에도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도 인정하는 바이며 인구과잉, 자원의 고갈, 식량의 궁핍, 환경의 오염등의 문제가 간단히 해결 될 수 없는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아는 일이므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언급은 교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부부들의 성생활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도 하느님의 계명과 양심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하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성생활도 양심과 신앙에 의해서 더 큰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 교회에 인류를 가르치고 성화하며 지도할 사명을 맡기셨으므로 이 사목적 사명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성이 인간 생명의 원천이므로 교회가 그 신성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정이 인간사회의 기본 단위이므로 교회는 가정의 성화를 조장케 하여야 하고, 모체에 있는 태아는 개별적 인간이므로 교회가 그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존케 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계획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가족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하느님의 자연법칙을 어기지도 말고 서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 써야 할 것이고 쾌락만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여기에 따른 본분을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모체 안에 있는 태아 일지라도 영혼과 육신으로 인명을 지닌 개별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무서운 살인죄입니다.

태아가 태어나기 몇달 전부터는 확실히 개별적 사람이므로 그때부터 그 태아를 죽인다면 이는 확실한 살인죄이고 잉태된 첫 순간부터는 이미 개별적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잉태된 순간부터 이를 죽인다면 이 또한 살인이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막중한 죄라고 한다면 죄없는 어린아이를 햇볕도 못 본채 죽이는 행위는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잉태한 태아를 죽일 수 있다면 이미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해서 태아를 죽일 수 있다면 같은 사유로 병든 사람들과 노인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바로 생명에 대한 인권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지라도 이 인권을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최고의 사명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일일진대 자기 자신을 호신하지 못하는 태아의 생명은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인구조절로 부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연법에 맞는 방법이나 자원의 개발, 이민정책 혹은 어떤 건전한 방법으로 인구조절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태아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인구조절을 도모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이익이나 가정의 이익이나 혹은 어머니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서 이미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지 못 하듯이 이와 같은 사유로 해서 잉태된 태아를 직접 죽여서는 안됩니다.

임신과 관련되지 않는 병이나, 혹은 자궁 외의 임신으로 인하여 위독한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나 수술로 태아의 희생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긴급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러한 경우일지라도 태아를 고의로 죽인다면 언제 든지 살인죄입니다. 루프를 사용하는 것도 피임행위가 아니라, 이미 잉태된 태아를 자궁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3) 부부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또한 하느님의 목적과 하느님이 세우신 자연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생활을 허락하시고 강복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를 낳고 기르고 보호하며 양육시키는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혼인 생활의 또 하나의 중대한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조장하며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의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부부들에게 한 몸과 같이 일치하라고 하셨으니 이 일치하는 부부행위와 이에 따르는 쾌락도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하게 향유할 것입니다. 성의 쾌락은 독립적 목적이기보다 위의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부부들이 쾌락을 위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의 목적(즉 자녀의 출생과 부부의 사랑) 중에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거절하거나 무효화한다면 이는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일인 만큼 죄악이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에 대한 미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이용할 것 같으면(예컨대 남편이 부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강간한다면) 누구나 이 행위를 모순된 일이며 더러운 것이라 판단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자녀를 번식하기 위한 행위를 일부러 태어나지 못하도록 헛되게 하는 것은 자연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자연적으로 수태치 못할 때에 부부행위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때 수정치 못하는 결과는 자연의 창조주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어기면서 인공적으로 부부행위 그 자체를 손상시키거나 그 자연적인 결과를 미리 방지하거나 막아낸다면 죄라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피임방법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루프를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임방법이 아니라 잉태된 태아를 자궁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살인행위입니다.

② 콘돔을 쓰는 것과 질 외에 사정하는 것은 부부행위 그 자체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③ 불임 수술이나 불임약은 부부행위의 자연적인 결과를 미리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④ 가로막이나 다른 여러가지 인공적인 방법은 성행위의 결과를 비자연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가지 비자연적인 피임방법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볼 때에도 비자연적인 피임에 따르는 허다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말아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주기법에 따라 한동안 금욕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나하면 이는 부부행위 그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공적으로 그 자연적인 결과를 미리 방지하거나 막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태치 못하는 기간에 부부행위를 하는 것도 죄가 아니며, 잉태될 수 있는 기간에 성행위를 안하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이와같이 하는 것은 자연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연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욕정을 억제하므로 하나님의 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기법을 이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연구와 실험결과로 이제는 주기법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약 15년 전에 또 하나의 자연적인 피임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는 배란법 혹은 점액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자연적인 것 만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해하기도 쉽고 비교적 실행하기도 쉽습니다. 배란방법을 15년동안 여러나라에서 실험해 본 결과 큰 성공을 이룬 사실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4년동안 수천쌍의 부부들이 실시했는데 생리적인 실패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모든 교구, 여러 본당 그리고 가톨릭 병원에서 이 자연적인 가족계획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모든 부부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므로, 여러 신자 부부들이 잘 배우시고 비신자 친지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잘 배운 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주기법으로 실패한 대다수의 부부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짐작으로 해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도 잘 배우지 않고 사용하면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혼히들 자기의 잘못은 책망하지 않고 방법자체가 쓸모없다고 비난하거나 무시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배란법을 실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좋은 성과를 바랄수 있는 것입니다.

① 부부들이 서로 진실히 사랑하고 배우자로서 서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욕정을 만족시키는 기계로서 서로 남용할 것입니다. 역시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하므로 서로에 대한 사랑도 나아질 것입니다.

② 부부들이 기쁨과 괴로움을 같이 나누어서 서로 잘 대화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데도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남편이 부인의 의사를 잘 받아들여서 협조하지 않으면 성공을 바랄수 없습니다.

③ 부부들이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로 감사히 받아들여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절대로 계획 이상의 자녀들을 낳지않겠다고 하지말고 힘이 있는대로 계획을 이행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더해 주시면 이를 실패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상 이상의 영광으로 받아들여, 다른 자녀와 차별없이 길러야 합니다.

④ 부부 양자가 굳은 신앙을 가지면 자연적인 가족계획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 양자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친 생명으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 앞으로는 하나님의 모시고 영원한 행복을 바란다면 이 영광을 버리지 않도록 희생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당신피를 흘리심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희생으로 이 사랑에 보답코자 할 것이고 우리 조상들도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 희생으로 순교 선열들의 본을 받코자 할 것입

니다.

부부 중에 하나가 신자가 아닌 경우에 교우인 배우자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굳은 결심을 해야 하고 신앙에 따라 하느님의 법칙을 준행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 장애되는 것을 신자가 아닌분에게도 설명하고 협조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⑤ 부부가 자기들이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받은 은총과 조력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못 하는 것을 하느님의 은총과 조력으로써 충분히 알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실망하는 일없이 계속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⑥ 가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하느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기도가 매우 중요 합니다. 기도의 초자연적인 효과 이외에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그날 서로 모독하는 일 없을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날 그 날에는 다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⑦ 성직자들도 여러분의 고생을 잘 이해하고 절실히 동정한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에 언제든지 사제들을 찾아가 마음을 드러내고 위로와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인간으로 죄악에 빠질 때라도 고백의 성사로 인자하신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생활의 전체를 성화한다면 배란법에 대한 성공을 바랄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전체를 성화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나자렛」의 성가정의 성화와 행복과 복지를 조장함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운동의 목적은 가정 도덕— 즉 부부의 사랑 존경, 부부의 화목과 신의,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과 양해, 자녀들의 영신적·도덕적·세속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을 권장 하고 가정생활의 은총과 축복을 인식케 하며 될수있었던 자연적인 가족계획도 가르쳐서 모자보전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부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셔서 이를 통해서 자기의 가정을 현대 사회의 부패에서 구출하여 거룩한 가정생활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1976년 6월 25일

천주교한국주교단

<22면에서 계속>

구의 증가는 근본적으로 둔화되어지고 따라서 정부나 사회단체는 더욱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나 사회단체는 그들의 능력한계내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발달을 적당한 방법들을 채택함으로써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여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법과 도덕법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f. Maler et Magistra in AAS, 53 (1961)

p 447: Populorum progressio, 37: Humance Vitae, 23)

■ 희망사항

